

### Chapter 13. GeoAI and Political Geography

발제자께서는 인문지리학 내에서 AI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접근을 제시하며 둘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치지리학자에게 있어 어떻게 여겨질지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소셜 센싱과 같은 기술을 비판적 태도로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AI의 통제를 위해 기술 비판론에 빠지지 않고 기술과 언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기술들이 권력의 전유물이 아닌 역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동감하는 바가 큼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성한 소셜 센싱 데이터를 활용해 더 이상 대중을 감시,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감시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비판지리학적 시선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역감시 역시 또 다른 권력의 기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 내부끼리의 상호 감시가 가능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역감시가 제 기능을 올바르게 실천되기 위해, 더 나아가 지속되기 위해 어떤 조건이나 제도적 준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 Chapter 14. GeoAI and Health Geography

발제자께서는 보건지리학에서 GeoAI가 활용되는 현상에서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쟁점을 함께 언급해주셨습니다. 보건지리가 팬데믹 이후에도 그렇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여러 헬스, 멘탈 케어 분야에서는 발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에서는 보건지리학에서 GeoAI를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선을 세 가지 소개해주셨습니다. 데이터 불평등과 표본 편향 등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셜미디어 기반 질병 감시의 허위 경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재난 상황이든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을 반영하게 되면 완벽하게 정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데이터(Linked Data) 반영입니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앞서 언급된 허위 경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급실 데이터나 병원 검사 데이터 등과 같은 임상 데이터를 함께 활용해 오류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는 데이터의 분리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시킬 때 "실제 감염 확산 혹은 재난 피해"와 "사회적 반응(ex. 호들갑)"을 분리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로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든 후, 상황 발생 시 두 개의 모델의 괴리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포맷을 형성할 경우 괴리가 크면 클수록 인포데믹 상태로 판단될 수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잡음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Chapter 15. A Review on the Application of Geospatial Intelligence in Tourism Geography

발제자께서는 관광지리학에서 GeoAI가 관광객의 이동 경로, 감정,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접근이 주로 이동과 소비 행위로 환원되는 경향이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장소가 지닌 서사와 기억, 상징과 같은 인문지리학적 요소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크게 동의합니다. 더 나아가 GeoAI를 활용한 방법론으로 관광 지역을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문학적 서사를 따라 이동하는 ‘문학 기행’의 공간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는 흥미롭고 신선한 주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제자께서 제시해주신 ‘문학 기행’의 관광화가 내포하는 쟁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의 상업화,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불균형 등도 중요한 문제지만 ‘문학적 의미의 단순화’가 개인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아래의 내용은 제가 생각했던 ‘문학적 의미의 단순화’입니다. 혹시 발제자께서 다른 의미로 ‘문학적 의미의 단순화’를 서술하신 것이라면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을 향유하는 문학들끼리도 공간에 대한 감정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어느 문학에서는 용산 공원을 식민지 근대성의 공간으로 여기기도 하고, 다른 문학에서는 전쟁에서 생환한 일본군들의 귀환식을 하는 공간으로 여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문학 기행’에서 기획한 용산 공원이 식민지 근대성의 공간으로써 구조화(단순화)된다면 다른 문학을 경험했던 방문객들에게는 전혀 공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이 문학적으로 단순화되는 것을 지양하고 여러 문학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